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김 헨리코 도리 헨리코 (1839-1866)

프랑스 뤼송 교구 출신인 김 헨리코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864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조선에 입국하여 용인 손골에 부임하였다. 순교하는 날까지 운명을 함께한 서 루도비코 신부와 가깝게 지냈으며, 우리말이 서툴렀으나 천성이 온화하고 친절해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는 손골에서 교우들이 자신을 '김 신부'라고 부르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기뻐하였는데, 왜냐하면 순교자 중에 김씨 성을 가진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연 김 신부는 입국한 지 10개월 만인 1866년 2월 체포되었다. 그리고 3월 7일, 동료 사제들과 함께 새남터에서 자신이 평소 바라던 바대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성화_보디아니 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소리 주보 ▶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오늘 미사 중에 〈교구 성지 개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예리코에 출현한 주님 군대의 장수

예리코 전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예리코 정복을 앞두었던 시기, 여호수아기에는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일화 하나가 소개됩니다. "주님 군대의 장수"라는 존재가 칼을 들고 등장하여 여호수아에게 '그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나리,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여호 5,13-15).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을 떼려던 참이라 이 장수의 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한 말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주님의 천사가 했던 말(탈출 3,1-2.5)과 비슷해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주님 군대의 장수'는 누구이고, 어떤 임무로 등장한 것일까요?

우선, 그의 출현은 탈출 33,2에 나오는 하느님의 약속과 관계 있어 보입니다: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다시 말해,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천사이며, 그의 등장으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된 셈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장차 예리코가 '주님께 성별될 곳'(여호 6,19)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주님 군대의 장수'는 하늘 군대에 속한 장수로서, '만군의 주님'이라는 하느님의 호칭과 관련된 존재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하느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뜻하며, 동시에 군대를 거느린 용사이심을 암시합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느님의 이미지는 탈출 15,3; 시편 24,8; 이사 1,24 등에 나옵니다. 이 호칭의 유래는 이렇게 추정됩니다. 천지창조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창세 2,1의 "모든 것"은 히브리어로 [짜바]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님'이라고 할 때, "만군"은 [짜바]의 복수형인 [쯔바옷]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호칭에 담겨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03,21-22에도 "주님의 모든 군대들"과 "주님의 모든 조물들"이 대구(對句)가 되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운 뒤 처음으로 패망을 맛은 곳도 예리코입니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당한 뒤, 유다의 마지막 임금 치드키야가 "예리코 들판에서" 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2열왕 25,5-6). 예리코에서 일어난 이러한 역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죗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오히려 주님께 많이 받았기에 그만큼 청구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김명숙 소피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박사, 광주가톨릭대학교 구약학 교수, 전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서 「에제키엘서」 「예레미야서 1-25장」 「예레미야서 26-52장」 「구세사 산책: 에덴에서 약속의 땅까지」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 ⑤ - 현세의 결과를 발판으로 충만함을 향해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정치인들이 열정적인 **활동** 중에도 자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193-197항). 물론 질병의 치유, 재정적 결핍의 보충, 거주지 마련, 여가와 재충전의 욕구 충족 같은 정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인간 존재들, 특히 가장 하찮은 사람들을 마치 자기 형이나 동생처럼 이 세상에 그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듯 그를 사랑하는 건 절대로 시간의 낭비가 아니며", 정치 영역에서도 '사람'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부드러움(tenderness)은 "온화함, 애정을 품음, 친절함"이란 사전적 뜻을 갖는데, 회칙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여 눈과 귀와 손에 도달하는 운동"이고 "가까이 다가오고 현실이 되는 사랑"이며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작고 여린 가난한 사람들에겐 **우리 마음과 영혼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는 교황의 성찰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호소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책무**를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나 지극히 거룩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 활동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까닭이 됩니다.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교황은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다면, 그 도움은 이미 자기 삶의 봉헌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담긴 배려의 행위"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 또 그 사랑을 위한 "고결한 노력"과 "고통스러운 인내"는 절대로 헛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생생한 기세**로 우리 세상을 에워싸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참으로 고결한 삶**이란 우리가 매일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뿌린 선성(善性, goodness)이라는 씨앗 안에 조용히 숨어 있는 생명력에 **희망**을 두고, 다른 이들이 결실을 거둘 그 여정에 **용감히**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 생활**에는 끊임없는 **쇄신의 힘**이 있습니다. 역량 있는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현존하는 선성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결합하게 합니다. 그러한 **정치 생활**은 "사람들과 모든 세대가 **새로운 관계·지성·문화·정신의 에너지**를 기대할 때마다"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회칙은 **정치**가 때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분열과 갈등과 암담한 냉소의 씨앗만 뿌리는 "변죽을 울리는 언동, 마케팅, 미디어 놀이" 따위의 훼방에 직면해 있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한 여전히 고결한 소명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벼아플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자문할 것을 호소합니다: "나는 국민의 진보를 위해 무엇을 했나? … 실제로 창출한 유대는 무엇이었나? 사회에 풀어놓은 긍정적 기세는 무엇이었나? 얼마나 많은 사회적 평화의 씨앗을 뿌렸나? 사람들이 내게 위임한 그 자리에서 내가 성취한 선(善)은 무엇이었나?"(197항)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 위 글에 나오는 인용은 필자의 번역에 따릅니다

열아홉 새엄마와 마태오

열아홉 새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남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뒤편엔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엄마와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슬퍼하던 아이에게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모자(母子)간의 인연, 저희 친정아버지 마태오와 새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새엄마와 아들은 열여섯 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 엄마 젖이 그립던 아이는 새엄마의 젖꼭지를 만지고 비틀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프다고 밀어내면 울면서 떼를 쓰기에, 억지로 참았습니다. 애도 낳아보지 않은 새댁이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또 아들이 새엄마와 다투고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일러바치면, 새엄마는 영락없이 시어머니께 불려 가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억울하다고 변명하거나 아들 탓을 하지 않고, 늘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할머니와 같은 그 나이였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할아버지)와 아들(아버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엄하고 검소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색하셨고,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늘 반항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월사금(月謝金)을 주지 않자, 새엄마는 몰래 벼 가마니를 꺼내 리어카에 싣고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도둑질이 따로 없습니다. 방아를 쪄서 마련해준 월사금을 들고 학교에 가는 아들을 볼라치면, 너무 불쌍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착하신 우리 할머니, 얼마 전 96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고모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 마태오네 집에 가서 일주일이나 자고 왔어. 연신 뭘 먹으라고 갖다주고, 사탕도 까서 내 입에 넣어주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 할머니는 이틀 밤을 주무시고 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지낸 걸로 착각하신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러셨을까요.

입관식에서 할머니는 평소의 성품답게 올곧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세 목이 메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착한 할머니, 우리 아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하느님께서 불쌍한 우리 아빠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할머니는 분명 천당에 가셨을 거야. 사랑해요." 관 속엔 곧 날아오를 것 같은 나비 모형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나비처럼 순리의 바람을 다 받아 안으시고, 뭘 쌓아 놓거나 채우지도 않으시고, 당신 앉은 자리를 항상 깨끗이 하시며 욕심 없이 가볍게 사셨지요. 할머니는 죽음도 나비처럼 받아들이시며, 훨훨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순교자처럼 사신 당신의 공덕을 품에 안고서 말이죠.

80년 전, 어린 마태오가 우두커니 앉아 엄마를 그리워할 때, 천사처럼 찾아와 준 열아홉 새엄마, 멋쩍은 표정으로 아이를 안았을 모습이 상상됩니다. 파란만장한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 장면 같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을까요. 할머니에게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할머니, 큰아들 마태오, 어떤 아들이었나요."

박지현 요세피나 sbs 공채 1기 방송 구성작가, 저서 「45일의 기적」「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교구 소식

2024 성서사도직 봉사자의 날 안내

일시 10/9(수) 09:30~17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회비** 2만원 (교재 미포함)
대상 성서사도직 단체 봉사자와 그룹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들
준비물 미사 준비, 필기도구, 개인컵, 교재 「알고 싶은 가톨릭 신학 1,2」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앙교육부 신청 ▶

성경의 세계

일시 10/16~11/20, 매주(수) 14시~16시 [총6회] **장소** 신앙교육원 (대면)
강사 주원준 박사, 송혜경 박사, 김선영 박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택 1) 신청 ▶
회비 1인 6만원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앙교육부

제33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꿍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10/18(금) 19시 ~ 20(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생태영성학교 – 기본과정 2기

일시 10/17~11/28, 매주(목) 11시 **장소** 백석동성당 대강의실
주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이해 **준비물**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접수 10/11(금)까지 **회비** 5만원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한마음 어게인 Talk 톡 어게인 토크 콘서트

일시 10/26(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광장
모집 200명 (선착순)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일정 10시: 강의 〈성모님의 생애로 본 오늘날 신앙인의 삶〉
12시: 점심 식사
13시: 생활 성가 부르며 느끼는 가을의 정취
15시: 공동체 파견 미사
회비 식대 포함 4만원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접수는 단체 및 개인 신청 모두 가능 (30명 이상은 1인 3만원)

2025년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맞이 가정 기도 운동

매일 오전 8시, 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위한 기도' (또는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전신자 성경 읽기 9/22(주일)~28(토) : 루카 21,20-38 9/28(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미사 · 피정 ▶▶

9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9/26(목) 11시 [매월 넷째(목)]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문의: 031-941-6238

ICPE선교회 Jesus 시그널 피정 5차
일시: 10/25(금)~27(주일) [2박3일]
장소: 합정 마리스타교육관
대상: 가톨릭 미혼청년 (만 28~39세)
문의: 010-5320-0419, ICPE카톡 플친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 생태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 이야기. 자연순례, 성지순례
날짜: 10/2~4, 10/25~27, 11/1~3, 11/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말연시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0/14(월)~16(수), 10/23(수)~25(금), 11/1(금)~3(주일)
추자도포함: 11/25(월)~28(목)
연말연시(한라산): 12/29(주일)~1/1(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9/2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마음의 상처치유
강사: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 (작은형제회)
문의: 010-2127-0032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 피정
일시: 9/28(토) 14시 ~ 29(주일) 14시
강사: 김완식 요셉, 김태광 신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가정회복 은혜의 낮 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9/23(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강사: 박용해 그레고리오 회장
주제: 가정회복을 위한 말씀과 기도
내용: 가정의 회복을 위한 중재기도와 말씀으로치유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7층
강사: 9/24 이상기 회장 , 10/1 김종국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10/4(금) 10시~15:30 [매월 첫 금요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다네이영성수련: 10/25(금)~27(일)
고3수험생 부모님피정: 11/14(목) 10시~15시
대침묵피정: 12/11(수)~14(토)
노베나신청: 11/2(토)~10(일) 9일 동안 미사와 위령기도를 봉헌해드립니다.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교육 · 모집 ▶▶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9/25(수)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접수: 9/30(월)~10/10(목), 전형일: 10/19(토)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7부터 10주(월~토)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가을 특강
날짜: 10/16~11/13, 매주(수) [5회]
미사: 12:10 / 강의: 13:30~15:30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5만원
10/16(수) 창조, 아름다움의 탄생_이창우 교수
10/23(수)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얼굴_이종한 신부
10/30(수) 보시니 美치도록 좋았다: 명화로 보는 창조_윤인복 교수
11/6(수) 천지창조를 만나는 예술여행 _바티칸 도슨트 채수한
11/13(수) 가을 음악회 [태양의 찬가] _남성4중창단 쫄리하모니
문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1차: 10/12(토) 14시, 2차: 11/2(토) 14시
대상: 현재 초6, 중1
※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9/28(토)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미리 연락)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0/5(토) 14시 ~ 6(주일) 13시	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예수회 센터 가을학기 강좌 – 9월 개강

월요피정(무료):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들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2
죽음수업: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 가치와 욕구
구약성경 아카데미: 하느님 백성의 첫째 성경 -구약성경의 기초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 시몬 베유
각 10~12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s.kr

안내 · 기타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8(월)~21(금) 일본 (홍성남 신부 지도, 145만원)
11/22(금)~25(월) 홍콩, 마카오 (145만원)
11/26(화)~12/7(토) 발칸반도(메쥬고리예) (395만원)
12/2(월)~12(목) 동부유럽 4개국 (385만원)
12/9(월)~20(금)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50만원)
문의: 02-2281-9070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운영: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 여행사 성지순례

10/23(수) 발칸 3개국, 메쥬고리예, 헝가리
12/20(금), 1/17(금) 이탈리아 일주 (희년 전대사)
1/7(화),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금),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catholictravel.co.kr 가톨릭회관 619호

라파엘 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1/11(월) 나가사키 (4일)
1/6(월) 멕시코 성지순례 (10일)
라파엘특선 (동반자 100만원 할인):
11/18(월)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1/17(주일),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수), 2/11(화), 3/11(화) 포르투갈 파티마일주 (9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DIOCESE OF UIJEONGBU

도/서/소/개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 이야기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에르메스 론키 | 박미애 옮김 | 192면 | 12,000원
문의 | 02-944-0944, 031-850-1533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길과 집에서 만나는 육화하신 하느님

복음서의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을 따라가며, 우리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가 이끄는 대로 나자렛의 스승을 조금 다른 눈으로 관찰해 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 밖으로 나오는 그분을 따라가 보고, 호의적인 이가 열어주는 문으로 또는 낯선 이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을 따라가 보자. 그분과 함께 식탁에 머물렀다가 아픈 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자. 부엌에도 같이 앉아있어 보고, 매우 인간적인 몸짓으로 가족처럼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머물러 보자."(들어가는 말)
날마다의 내 삶이 녹아있는 삶의 터전, 우리 집과 일상이 하느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서와 복음 _ 평일

지난주에는 주일에 봉독되는 독서와 복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평일'에 봉독되는 독서와 복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선, 평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은 일반적으로 주일과 (대)축일에 들어가지 않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주일과 축일의 독서와 복음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평일 미사에서는 1개의 독서와 1개의 복음이 읽힙니다. 독서는 구약성경과 사도들의 저서 및 묵시록 중에 선택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활 시기에는 주일처럼 사도행전이 봉독됩니다. 연중 시기의 평일 독서는 2년 주기, 홀수해와 짝수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독서는 시기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1년 주기로 매해 반복됩니다.

평일 미사의 복음 역시 1년 주기로 매해 반복됩니다. 연중 시기의 평일 미사 복음을 보면, 연중 제1~9주간에는 마르코복음, 제10~21주간은 마태오복음, 제22~34주간은 루카복음이 봉독됩니다. 평일이라도 고유한 특성이 있는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복음이 선택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서와 복음의 봉독은 항상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는 '지금까지 들은 독서와 복음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미 예전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경청하는 이에게 생생히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29항; 전례헌장 7.33항 참조).

한편, 전체 신자가 독서나 복음을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는 공동 독서는 전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 교육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전례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말씀 전례는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화답하는 전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의 성격을 무시하고 모두가 함께 봉독한다면,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는 독백 형식의 전례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미사 중에 봉독하는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 말씀인 '성경' 본문이어야 합니다. 성경 이외의 어떠한 책과 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인의 저서이든 공의회 문헌이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인 독서와 복음을 성경 이외의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건 불가합니다.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신부	**행 주 성 당**	
031-974-1728	사 무 실		
031-972-8537	팩 스		
sd.uca.or.kr/hjsd1909	홈페이지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1일 (마태오): 이은혁

본당공지

▣ 10월 성시간

일 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 교구 성지 개발 2차 헌금

오늘은 교구내 성지 개발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10월 봉성체

일 시: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동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작일: 2024년 10월 5일 토요일부터

구 분	토요일 저녁 미사 시간
하절기 4월 - 9월	오후 7시
동절기 10월 - 3월	오후 5시

▣ 9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9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9월 22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윤병수(그레고리오), 석마리아(마리아)	
9월 29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우리들의 정성

※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 복음 말씀 -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